



돌발해충

미국 흰 불나방 유충 피해 확산 우려



전라남도농업기술원



주로 활엽수에 서식하는 산림해충

미국흰불나방 유충

크기 0.5mm 이하

몸에 검은 점과 흰 털이 많고 실을 토하여 잎을 싸고 떼를 지어 살며 4령충 이후가 되면 실을 토하지 않고 분산하여 기주식물의 잎맥만 남기고 잎을 먹어 치운다. 암컷 한마리가 알을 600~700개를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대단하고 1년에 한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많게는 3번까지 출몰 할 수 있다.

미국흰불나방 유충이

환경에 미치는 영향

가로수와 정원수를 비롯해 감나무
복숭아나무, 뽕나무 등 각종
과수류에 피해가 심하다.
거미줄 같은 지저분한 서식지를
만들어 군집생활을 하는 특성 때문에
생활권 내에 불쾌감과 혐오감 뿐만
아니라 피부병을 유발 할 수도 있다.





돌발해충 출몰원인

지구온난화

최근 기후 변화로 겨울철 따뜻한
기간이 늘어나면서 월동하는 생존
개체가 높아져 해충발생이 늘고
있으며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
병해충들이 더 빈번하게 산란을
하고 있다.



유충 방제법

잎을 가해하는 시기인 5월~10월까지
기주식물의 잎과 가지 등에 약충들이 군집하고
있을 때 알맞은 약제를 선정하여 피해와 개체수에
따라 1주일~10일 간격으로
2~3회 살포방제 작업을 진행해 준다

약제 살포 시 주의점

약제 살포 시
잔류농약 검출 등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
(PLS, Positive List System)에 위반되지 않도록
하고 대상 작물별로 등록된 약제를 사용하며
수확 시기 등을 고려합니다.

약제에 관한 정보는 농촌진흥청 누리집
'농약정보시스템(<http://pis.rda.go.kr/>)'
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전라
남도

농업기술원